

〈챕터 1. 품사와 문장 성분〉

〈품사 분류〉

1.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¹⁾

〈 보 기 〉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관제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품사 - 대명사, (답화)〉

2.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

〈 보 기 1 〉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 보 기 2 〉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 :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 택배 왔습니다.

아들 :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 부정칭 대명사 ② ㉡ : 일인칭 대명사
 ③ ㉢ : 미지칭 대명사 ④ ㉣ : 재귀대명사
 ⑤ ㉤ : 이인칭 대명사

〈품사 - 대명사〉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³⁾

〈 보 기 〉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랄도 좀 먹어야겠다.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④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서 있었다.

〈품사 - 대명사, (답화)〉 (대수능)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

〈 보 기 〉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품사 - 조사〉

5.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⁵⁾

가 ㉠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르’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 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보 기 〉

- 어느새 연못 속의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넓던 갈대밭이 모두 ㉣뽕밭이 되었다.
- 나는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을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을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품사 - 조사〉 (대수능)

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⁶⁾

예 ㉠

- ①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예’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 군.
- ② ‘예[2]’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3]’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예[1]①’의 용례에 쓰인 ‘예’는 ‘에서’로 바뀌 쓸 수 없군.
- ⑤ ‘예[1]②’의 용례에 쓰인 ‘예’를 ‘에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군.

〈품사 - 조사〉

7.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예’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⁷⁾

〈 보 기 〉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품사 - 조사〉

8. 〈보기 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 2〉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⁸⁾

- 〈 보 기 1 〉
- ㄱ.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ㄴ.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ㄷ.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 보 기 2 〉
-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
 -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ㄱ	ㄴ	ㄷ
①	a, b	c	d, e
②	a, c	b, e	d
③	a, d	b, c	e
④	b, c	d, e	a
⑤	d, e	a	b, c

〈품사 - 조사, 문장 성분〉

9.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⁹⁾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 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 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품사 - 조사, 문장 성분〉 (모의평가)

10.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¹⁰⁾

〈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썰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썰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썰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품사 - 조사〉 (모의평가)

1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¹¹⁾

- 〈 보 기 1 〉
- ‘-마는’ :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 〈 보 기 2 〉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품사 - 부사》

12.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¹²⁾

〈 보 기 〉

선생님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 ① 연우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② 세현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③ 서진 : 나는 눈발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 ④ 정연 :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한다.
- ⑤ 은우 : 나는 배가 아파 이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품사 - 품사의 통용(명사, 부사)》

13.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³⁾

〈 보 기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운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품사 - 동사, 형용사》

14.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¹⁴⁾

〈 보 기 〉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 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 ② 나이보다 얼굴이 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
-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품사 - 동사, 형용사》

15.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말한 사람은?¹⁵⁾

〈 보 기 〉

선생님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	㉢
	현재형 과형사형 어미 ‘-는’	감탄형어미 ‘-구나’	칭유형어미 ‘-자’
동사	○	×	○
형용사	×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용언 - 용언의 활용(규칙 활용)》

16.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¹⁶⁾

의문	‘자리를 바꿔(○) 앉았다.’와 ‘잔금을 치뤘(x)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뤘’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어 → 바꿔 ◦ 치르-(다) + -어 → 치러 (2)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ㄴ’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ㄴ’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ㄴ’이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얗게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용언 - 용언의 활용(불규칙 활용)》

17.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¹⁷⁾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u>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u>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굴다.
 어머니께서 빵을 굴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용언 - 용언의 활용(불규칙 활용)》

18.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¹⁸⁾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걷-	+ -고	→	걷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용언의 활용, 문장 성분〉

19.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¹⁹⁾

〈 보 기 〉

맞다¹ [맞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 …에/에게 】 ㉡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맞다² [맞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 …을 】 ㉢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 …을 】 ㉣ 그 신문은 창간 일곱 돌을 맞았다.

- ① 맞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② 맞다²의 「1」의 용례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맞다¹과 맞다²는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군.
- ④ 맞다¹의 「2」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군.
- ⑤ 맞다¹과 맞다²는 활용을 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용언의 활용〉

20.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ㄴ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²⁰⁾

언어 자료

- 던진다, 온다, 잔다
- 묻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

쓰임 환경

- -ㄴ다
 - (㉠) 뒤
 -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 -는다
 - ‘ㄹ’ 받침을 제외한 (㉢) 뒤

- | | | |
|---------------|---------|-------------|
| ㉠ | ㉡ | ㉢ |
| 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어미 ‘으시’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 ②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피동사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 ③ 타동사 | 어미 ‘으시’ | 피동사 |
| ④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타동사 | 피동사 |
| ⑤ 타동사 | 피동사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용언의 활용〉

21.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²¹⁾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 / 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어문 규정에 맞음. ×: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신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①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신-(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ㄴ(어미)

②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 / 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ㄴ
부풀은(×) / 부푼(○)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ㄴ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

- | | | |
|---|---------------|------------|
| | ㉠ | ㉡ |
| ① | ‘ㄷ’이 ‘ㄹ’로 교체됨 | ‘-으-’가 삽입됨 |
| ② |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문장 성분〉

26. 〈보기〉의 용례들을 바탕으로 ‘받다’의 의미 및 쓰임 상의 특성을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⁶⁾

- 〈 보 기 〉
- ㄱ. 영희는 남자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다.
 - ㄴ. 철호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
 - ㄷ. 그녀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 ㄹ. 아이의 어리광을 받아 주기만 하면 안 된다.
 - ㅁ.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욕물을 욕조에 받아 주셨다.
 - ㅂ. 밝은 색 옷이 그에게 잘 받을 거야.

- ① ㄱ, ㄴ을 보니, ‘...에게/에게서 ...를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으로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도 취할 수 있군.
- ② ㄷ, ㄹ을 보니,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 ‘(사람을) 맞아들이다’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군.
- ④ ㅁ을 보니, ‘...을 ...에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되면 ‘답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군.
- ⑤ ㅂ을 보니, 목적어 없이 주어와 부사어하고만 어울려 사용될 수도 있겠군.

〈문장 구조〉

27.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⁷⁾

〈 보 기 〉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ㅁ’,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례		설명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	⇒	‘코끼리는’이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①
○친구가 소리도 없이 내 뒤로 <u>다가왔다</u> .	⇒	‘다가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②
○지금은 <u>학교에 가</u> 기에 늦은 시간이다.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③
○오늘 급식을 <u>일찍 먹</u> 기는 힘들겠다.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④
○현태는 <u>자기가 옳다</u> 고 주장했다.	⇒	‘현태’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⑤

〈문장 구조〉

28.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⁸⁾

- 〈 보 기 〉
- **이어진 문장** : 둘 이상의 홀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 홀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표시 :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챕터 2. 표현 파트〉

〈종결 표현〉

29.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발표 준비를 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²⁹⁾

〈 보 기 〉

- ㄱ. 철수는 대전에 갔다.
- ㄴ. 철수는 대전에 안 갔다.
- ㄷ. 철수는 대전에 가지 않았다.
- ㄹ.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 ㅁ. 철수는 대전에 못 갔다.
- ㅂ. 철수는 지금 공부한다.

- ① ㄴ은 ㄱ의 부정으로, 서술어 앞에 ‘안’을 넣어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 ② ㄷ은 ㄱ의 부정으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뒤에 ‘아니 하다(않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문이다.
- ③ ㄹ은 부정문이 아니라, ㄱ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 의문문이다.
- ④ ㅁ은 ㄴ과 달리 행동 주체의 사정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내는 짧은 부정문이다.
- ⑤ ㅂ의 ‘공부하다’와 같이 ‘체언+-하다’로 결합된 경우의 짧은 부정문은 ‘안 체언+-하다’의 형태가 된다.

〈문장 표현 관련 - 어미〉

30.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⁰⁾

〈 보 기 〉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맞지?

철수 :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말겠어.

영희 : 그럼 너희 형은?

철수 : 아마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갔다더라고.

영희 :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 ① ㉠ : 확인 ② ㉡ : 의지 ③ ㉢ : 추정
- ④ ㉣ : 단정 ⑤ ㉤ : 감탄

〈문장 표현 관련 - 어미〉

3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³¹⁾

〈 보 기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리-’와 ㉣의 ‘-았-’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문장 표현 관련 - 선어말 어미〉

3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³²⁾

〈 보 기 〉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문장 표현 관련 - 선어말 어미〉

33.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나타나는 ‘-었-, -았-, -였-’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었다.
 - ㄴ. 나사를 세계 조였다.
 -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었다.
 - ㄹ.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고, 철수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 ㅁ. 그는 학생이었고, 뒤에 오는 부부는 그의 부모였다.

- ① ㄱ~ㄹ의 서술어에 나타난 ‘-었-, -았-, -였-’ 속에는 모두 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ㄴ에서는 서술어의 기본형이 ‘조이다’이고, ㄷ에서는 ‘먹이다’이므로 두 경우 모두 ‘-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ㄱ과 ㄷ의 서술어에 나타난 ‘-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가 다를 수 있다.
- ④ ㄹ로 보아, 어간 뒤에 ‘-았-’이 아니라 ‘-었-’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다.
- ⑤ ㅁ으로 보아 ‘-이었-’의 준말인 ‘-였-’은 ‘-이었-’을 쓸 때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문장 표현 관련 - 선어말 어미〉

34.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

- 〈 보 기 〉
-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던라.
 -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③ ㄹ의 ‘-던-’은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문장 표현 관련 - 전성 어미〉

3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

- 〈 보 기 1 〉
- 〈관형사형 어미〉
-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 〈 보 기 2 〉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춘향전이다.
 -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니?
 -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ㄹ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문장 표현 관련 - 전성 어미, 접사〉

3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36]

- 〈 보 기 1 〉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 보 기 2 〉
-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 ㄴ. 영희는 **잠**¹을 **잠**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② ㄴ의 ‘잠’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문장 표현 관련 - 연결 어미〉

37.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7)

- 〈 보 기 〉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문장 표현 관련 - 연결 어미〉

38.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38)

- 〈 보 기 1 〉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 〈 보 기 2 〉
-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 ㄷ.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 / 울면서 왔다.
 -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면,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문장 표현 관련 - 연결 어미〉 (대수능)

39.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 보 기 〉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켰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상냥하자 차분하다.
 -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문장 표현 관련 - 어미, 조사〉 (모의평가)

40.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40)

자료	• (선생님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의문점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한다. [예] 원사님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예]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예] 단어, 어쨌어, 어디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예]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부정 표현〉

41.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⁴¹⁾

〈 보 기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긴 부정문입니까?

⇒
아니요

㉡

↓예

㉣

	㉠	㉡	㉣
①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②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③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동생이 못 잔다.
④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못한다.

〈부정 표현, 피동 표현, 관용 표현〉

42.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²⁾

〈 보 기 〉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부정 표현〉

43.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³⁾

국어 학습 Q&A

질문
학생
 오늘 문법 시간에 부정문에 대해 배웠는데,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고,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상태 부정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 부정은 ‘못,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태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화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긴 부정문인 경우, 명령문에서는 ‘마/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말자’를 사용합니다.

〈문법 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높임 표현〉

44.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⁴⁾

〈 보 기 〉

어머니 :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덥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어머니 :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 할머니 댁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높임 표현〉

45.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⁵⁾

〈 보 기 〉

점원 :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손님 : 셔츠를 좀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 그러시면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 주세요.

- ① ㉠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높임 표현〉

46. <보기>를 바탕으로 주체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⁶⁾

〈 보 기 〉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ㄱ'.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ㄷ.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ㄱ'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ㄴ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ㄴ'는 주체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ㄴ의 '넉넉하시다'와 ㄷ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ㄴ과 ㄷ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높임 표현〉

47.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1점]⁴⁷⁾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높임 표현〉 (대수능)

48.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⁴⁸⁾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계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진지).....㉡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시제 표현〉

49. 〈보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ㄱ~ㄴ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⁹⁾

〈 보 기 〉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ㄴ. ‘-았었/였었-’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ㄷ.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

ㄹ.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① ㄱ :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
- ② ㄴ :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 ③ ㄷ : 지난여름에는 정말 덥더라.
- ④ ㄹ :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
- ⑤ ㅁ :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

〈시제 표현〉

5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⁵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능피주사 표현〉

5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왔다. 잘못된 것은? [3점]⁵¹⁾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능피주사 표현〉

52. 〈보기〉의 ‘걸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⁵²⁾

〈 보 기 〉

걸다 [동사]

-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걸다①’ : 그는 문단에 이름이 걸린 작가다.
- ② ‘걸다②’ : 그는 걸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걸다③’ :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걸렸다.
- ④ ‘걸다④’ : 그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걸다⑤’ :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능피주사 표현〉

53.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⁵³⁾

〈 보 기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⑤ 정원은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중의적 표현〉

5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ㄴ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⁵⁴⁾

〈 보 기 〉

중의성(重義性)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구성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의 직접구성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이다.

ㄱ.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ㄷ.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 ①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다.
- ② ㄴ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에는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ㄷ의 경우 ‘부지런한’을 고려하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구성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이다.
- ⑤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용 표현〉

55.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관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⁵⁵⁾

〈 보 기 〉

- 다소 노골성을 비치는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가), 은근한 가운데 함축성 있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

- 이희승, 「먹추의 말참견」중에서 -

- 그때 (나) 오리발만 내밀던 녀석의 소행머리를 생각하니 속에서 다시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 윤홍길, 「완장」중에서 -

(가)

(나)

- | | |
|-----------|---------|
| ① 변죽을 울리며 | 판죽을 걸며 |
| ② 변죽을 울리며 | 본때를 보이며 |
| ③ 변죽을 울리며 | 시치미를 떼며 |
| ④ 시치미를 떼며 | 본때를 보이며 |
| ⑤ 시치미를 떼며 | 변죽을 울리며 |

〈관용 표현〉

5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56)

〈 보 기 〉

‘손’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씹씹이나 사람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일을 하는 솜씨나 처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솜씨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이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 ② 제가 손이 서툴러서 일을 망쳤으니 어찌면 좋아요.
- ③ 철수는 손이 여물어서 어려운 일도 잘 마무리합니다.
- ④ 영수 엄마는 손이 재서 음식을 금방 만들어 내었습니다.
- ⑤ 손이 뜬 민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작업을 끝냈습니다.

〈챕터 3. 표기, 문장 다듬기 파트〉

〈표기 - 표의주의/표음주의〉

5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⁵⁷⁾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있다.

〈표기 - 띄어쓰기(의존 명사, 조사)〉

58.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⁵⁸⁾

〈 보 기 〉

【 질문 】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표기 - 띄어쓰기(의존 명사, 조사)〉

59. 〈보기〉는 띄어쓰기 사례를 사전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⁵⁹⁾

〈 보 기 〉

- 어제 ㉠집 사장과 만났다.
- 자동차가 ㉡쏟살같이 달린다.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정직한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① ㉠으로 보아, ‘박 과장, 이 대리’라고 써야 할 거야.
- ② ㉡처럼 ‘쏟살같이’를 붙여 쓰니까, “부모님과같이 가다.”의 ‘부모님과 같이’도 붙여 써야 해.
- ③ ㉢의 사례로 볼 때,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의 ‘돋듯이’도 붙여 써야 해.
- ④ ㉣로 보아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의 ‘너만큼’도 붙여 써야 해.
- ⑤ ㉤의 사례로 볼 때, ‘아름다운 꿈, 멋진 사람’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아.

〈표기 - 띄어쓰기(의존 명사, 조사)〉

60. 〈보기〉(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⁶⁰⁾

〈 보 기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표기 - 띄어쓰기(의존 명사, 어미)〉

61.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⁶¹⁾

학생 :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ㄴ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뒀.
- ⑤ ㉡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표기 - 띄어쓰기(의존 명사, 어미)〉

6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⁶²⁾

〈 보 기 〉

㉠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ㄴ’과 ‘지’는, ‘-ㄴ지’와 ‘-ㄴ 지’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 미리 자 들걸.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② ㉠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 이렇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⑤ ㉠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표기 - 띄어쓰기(본용언, 보조 용언)〉 (모의평가)

63.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⁶³⁾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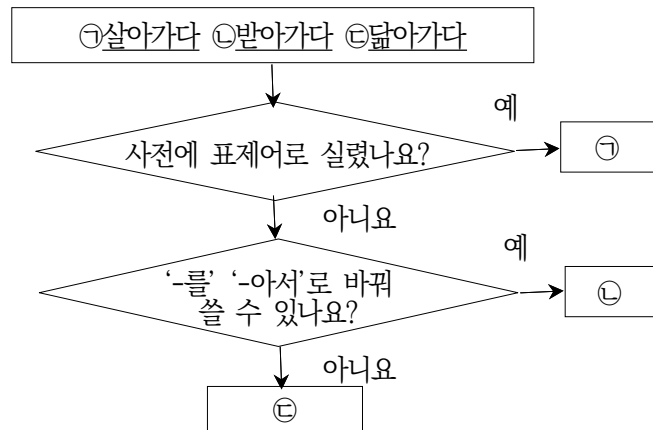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땡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땡아 가다 또는 땡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땡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땡아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땡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땡아 가다 또는 땡아가다

〈표기 - 준말〉

64. 〈보기〉에 따를 때, 밑줄 친 두 단어가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⁶⁴⁾

———— 〈 보 기 〉 ————
본말은 본디 소리마디의 말이고,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이다. 두 말을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을 때,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① 손이 닿지 않는데, 그것 쭈(조금) 주시겠어요?
- ② 맑(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두 사내(사나이)가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 ④ 너희들끼리 싸(싸움)를 하다가 다친 모양이구나.
- ⑤ 두 소녀는 얘기(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표기 - 된소리〉

65.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메모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완성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⁶⁵⁾

———— 〈 보 기 1 〉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가끔’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산뜻하다, 훨씬, 음절, 엉뚱하다’처럼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갑자기’와 같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똑똑(-하다)’처럼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씩씩’처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 보 기 2 〉 ————

형의 ㉠(해숙한/해썩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되셨나 봐. ㉡(짹잘한/짹잘한)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깍두기/깍두기)를 심심하게 담그시더니 형에게 보내라고 하시네. 혼자서 밥을 챙겨먹기는 힘들겠지만 ㉣(듬북/듬뿍)담긴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끼니 거르지 마. 이제 형은 집 걱정 ㉤(몽당/몽땅) 잊고, 건강 먼저 챙겨.

동생이

-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썩한’으로 써야 한다.
- ②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고 있으므로 ‘짹잘한’으로 써야 한다.
- ③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므로 ‘깍두기’로 써야 한다.
- ④ ㉣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이라고 써야 한다.
-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표기 - 된소리〉

66.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⁶⁶⁾

———— 〈 보 기 〉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해숙하다(×) → 해썩하다(○)
으뜸(×) → 으뜸(○)
2.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 산뜻하다(○)
담북(×) → 담뿍(○)
3.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쑤(×) → 국수(○) 갑짜기(×) → 갑자기(○)

———— 〈 학생의 글 〉 ————

- ㉠ 아이는 옷을 거꾸로 입었다.
- ㉡ 소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불혔다.
- ㉢ 그는 잘 익은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 ㉣ 그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 ㉤ 어머니께서는 가위로 옷감을 썉둑 자르셨다.

- ① ㉠의 ‘거꾸로’는 제5항-1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 ② ㉡의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살작’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③ ㉢의 ‘깍두기’는 제5항-3의 규정에 따라 ‘깍두기’로 고쳐야 합니다.
- ④ ㉣의 ‘몽땅’을 ‘몽당’으로 표기하면 제5항-2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 ⑤ ㉤의 ‘썉둑’은 제5항-3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표기 - 이/히〉

67. 〈보기〉의 설명에 따라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⁶⁷⁾

———— 〈 보 기 〉 ————
한글맞춤법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 적는 것〉

- 첩어인 명사 뒤
-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

〈‘-히’로 적는 것〉

- ‘-하다’가 붙는 어근 뒤
-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소리나는 경우

- ① 손수건을 (고이 / 고히) 접었다.
- ② (겹겹이 / 겹겹히) 옷을 껴입었다.
- ③ (죽이 / 죽히) 열흘은 걸릴 것이다.
- ④ 그는 (느긋이 / 느긋히) 기다리고 있었다.
- ⑤ 할아버지는 그를 (각별이 / 각별히) 아꼈다.

〈표기 - 맞춤법〉

68. 밑줄 친 어휘가 모두 바르게 쓰인 것은?⁶⁸⁾

- ① [오늘이 몇 일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 ② [우리는 서로 바빠서 오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정말 오랫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다.]
- ③ [잠자던 아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났다.
여름에는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이다.]
- ④ [상승세를 탄 우리 팀은 상대팀을 밀어붙였다.
그것은 지금 필요 없으니, 저 구석에 밀어부쳐 놓아라.]
- ⑤ [언니는 홀몐이 아니니까, 태아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해!
내 친구는 부모형제 없는 홀몐이지만, 정말 씹씩하다.]

〈표기 - 맞춤법〉

69. 〈보기〉를 참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쳐 사용하는 활동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⁶⁹⁾

〈 보 기 〉

당기다 : 1.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2. 입맛이 돋우어지다.
3.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4.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댕기다 : 불이 옮겨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

땅기다 :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 ① 활의 시위를 댕기었다.(→당기었다)
- ② 많이 걸어 종아리가 댕졌다.(→당졌다)
- ③ 입맛이 땅겨 과식하게 되었다.(→당겨)
- ④ 예정보다 이틀 땅겨 출발했다.(→당겨)
- ⑤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당졌다.(→댕졌다)

〈표기 - 맞춤법〉 (모의평가)

70. 〈보기〉는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어법에 맞는 것은?⁷⁰⁾

〈 보 기 〉

시험을 앞두고 나는 불안감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지난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공부할 계획만 거창하게 세웠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되었다.

㉡엇그제 선생님과 면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웬만큼 공부해서는 성적이 ㉣올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정답이 되는 이유까지 ㉤꼼꼼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표기 - 맞춤법〉 (대수능)

71.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⁷¹⁾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넙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표기 - 맞춤법〉 (대수능)

72. 다음 〈보기〉를 읽고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⁷²⁾

〈 보 기 〉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빨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는 이러한 결과 우선의 사고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는지만 생각했지, 그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자양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그렇수록 과학 기술의 결과 우선 주의가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초 과학 분야를 도외시한 채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응용 과학 분야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 ④ 있을는지만 ⑤ 채

〈표기 - 맞춤법〉 (대수능)

73. 다음 〈보기〉를 읽고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⁷³⁾

〈 보 기 〉

선생님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지요.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선생님 책상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넘어뜨렸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책상을 홍건이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였다면 별로 큰일이 아니었겠지요. 마침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까만 잉크가 하얀 종이를 마치 세계지도처럼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저 서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생님께서 오셨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어떤 벼락이 내릴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고는 “괜찮다.” 한 마디만 하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는 교무 부장이셨지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 ① 홍건이 ② 그것만이였다면 ③ 큰일
- ④ 한참 동안 ⑤ 괜찮다

〈문장 다듬기〉

79.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79)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다.....㉠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문장 다듬기〉

80.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0)

탐구 학습지

과제 :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문장 다듬기〉

81.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1)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② ㉡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③ ㉢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④ ㉣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⑤ ㉤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문장 다듬기〉 (모의평가)

8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82)

〈 보 기 1 〉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 보 기 2 〉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가) (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장 다듬기 - 고쳐 쓰기〉

83.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³⁾

〈 보 기 〉

16세기 말 영국 탐사대의 일원인 과학자 해리엇은 인디언 부락을 지나다가 많은 인디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인디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은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인디언들은 영국인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인디언들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충알을 쏘아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미생물의 존재를 밝혀낸 유럽의 과학자들은 1890년대에 이르러 바이러스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작되었다. 이 소설은 지구를 초토화시키던 외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자멸하는 ㉤내용의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 ③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확인되었다’를 ‘확인된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제작’이라는 말이 어색하므로 ‘창작되었다’로 바꿔야겠어.
- ⑤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로 고쳐야겠어.

〈문장 다듬기 - 고쳐 쓰기〉

84. <보기>의 글을 쓴 다음 고쳐 쓰기를 위해 자기 평가를 해 보았다. 자기 진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⁸⁴⁾

〈 보 기 〉

우리들의 제안 :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자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작년부터 손수건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전혀 불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만큼 종이를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을 갖게 된다. ㉡ 우리는 ㉢관습적으로 휴지를 마구 뽑아 쓴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닌 두 장, 석 장씩이나 뽑아 쓴다. ㉣손 닦으려고 한 장, 입 닦으려고 한 장, 칫솔 닦으려고 한 장 이런 식이다.

집안에 잠자고 있는 손수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손수건을 한 장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평가 항목	자기 진단 결과
① 내용의 보완·삭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 다음에 다른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사례를 덧붙여야겠어.
② 문단의 구분	㉢ 이후에서 앞부분과 내용이 달라지니 여기서 문단을 나누어야겠지.
③ 문장의 성분	㉣에는 목적어가 없어 어색하므로 ‘손수건을’이라는 목적어를 넣는 게 좋겠어.
④ 어휘의 쓰임	㉤은 ‘습관적으로’로 고쳐야겠지.
⑤ 띄어쓰기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않을 뿐만’으로 고쳐야겠어.

1) ③

[출제의도] 품사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며,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2) ①

[출제의도] 지시 대상에 따라 인칭대명사의 종류를 구별한다.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보면, 문 앞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칭 대명사로 파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은 자신을 낮추는 일인칭 대명사, ㉡은 미지칭대명사, ㉢은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진 할머니를 다시 받는 재귀대명사, ㉣은 이인칭 대명사이다.

3) ①

[출제의도] 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구체적 사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의 ‘무엇’은 화단에 있는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사례에 해당한다.

4) ⑤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답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오답]

- ① ㉠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5) ②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에서 ‘개구리가’의 ‘가’는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하지만 ‘개[1]’를 통해 볼 때, ⑥의 ‘가’는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지, ‘아니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이 문항은 조사 ‘에’, ‘에서’의 국어사전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③’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격 조사로 쓰일 때의 뜻풀이임에 비해 ③에서 제시한 문장은 ‘에서’가 처소의 부사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①’의 용례에 해당한다. ‘에서③’의 용례로는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 ①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에’는 .에서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음에 비해, ‘에서’는 격 조사로 쓰이는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 ②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뜻풀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는 타당한 용례이다.
- ④ ‘에.①’의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에서 ‘집에’를 ‘집에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와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에’가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 것이고, 후자는 ‘에서’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7)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지만 ㉡은 ‘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8) ③

[출제의도] ‘-에서’의 의미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a의 ‘-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되게 하고, d의 ‘-에서’는 ‘일’을 ‘행한’ 근거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이 되게 하므로 ㄱ에 해당한다. b와 c의 ‘-에서’는 각각 ‘동창회’와 ‘도서관’이 처소가 되게 하므로 ㄴ에 해당하고, e의 ‘-에서’는 어떤 상황이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는 상황과 비교가 되게 하므로 ㄷ에 해당한다.

9)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이 문항은 격 조사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친구한테’의 ‘한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에게’보다 구어적인 말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한테’는 다른 문장 성분에는 쓰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를 대신하여 ‘나한테’를 쓰면 해당 문장 성분의 격이 주격에서 부사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만 쓰이는 격 조사에 해당하며 보조사가 아니다.

[오답]

- ① ‘밤에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② ‘오늘은’의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 ④ ‘악기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⑤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도’와 비슷한 의미를 지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0) ④

㉠의 괄호에서 ‘도’가 아닌 ‘는’이 선택된 기준은 앞에 언급한 할아버지를 지정하여 가리키기 위함이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11) ④

⑥ ‘오늘은 그냥 간단만 다음에~’의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고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한다. ④ ‘얼마나 되겠느냐만 살림에~’의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고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있으므로 ‘-마는’이 들어가야 한다.

12) ①

- 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 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니 다행이다.

위의 예로 보아 ‘다행히’는 〈보기〉에서 설명한 ‘의외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오답]

②의 ‘그리고’는 문장 부사 중 접속 부사이고, ③, ④, ⑤의 밑줄 친 부사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13) ③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온다’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어 ‘품사 통용’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14) ④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구분한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의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자라다’의 뜻으로 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15) ⑤

[출제의도] 도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용례를 떠올리며 탐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선생님의 말대로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품사의 활용 방식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를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있다’, ‘없다’를 〈보기〉에 제시한 어미와 결합시켜 확인하면서 용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다. ⑤ ‘없다’는 ‘있다’와 청유형을 취할 수 있느냐에서는 차이가 난다. 예컨대 “우리 여기에 있자.”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없자.”라는 말은 어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없다’라는 말은 청유형에 있어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단어이다.

[오답]

- ① ‘있는 사람’, ‘있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없는 사람’, ‘없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사람이 없구나’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감탄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여기에 있자.’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청유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치르’는 ‘치르다’가 기본형으로, ‘치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②의 ‘잠가’ 역시 ‘잠그다’가 기본형으로, ‘잠그-’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 형태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 ① ‘깨우다’가 ‘깨워’가 된 것은 규칙 활용으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 ③ ‘굽다’가 ‘구워’가 된 것은 비불규칙 활용이다.
- ④ ‘하얏다’가 ‘하얘’가 된 것은ㅎ불규칙 활용이다.
- ⑤ ‘듣다’가 ‘들어’가 된 것은 ㄷ불규칙 활용이다.

17) ③

[출제의도]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의 ‘굽다’와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을 지닌 ‘굽다’는 ‘굽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구워서’로 활용되어 어간 ‘굽-’의 ‘ㅂ’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오답]

- 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모두 ‘나아서’로 활용되어 어간 ‘낫-’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②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모두 ‘울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 ④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일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서 ‘ㄹ’이 탈락하고 ‘ㄹ’이 생기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이르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 기본 형태의 어미 ‘-어서’가 결합되지 않고 ‘-러서’가 결합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⑤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모두 ‘타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18) ②

‘파래서’는 어간인 ‘파랳-’, 어미인 ‘-아서’의 형태가 모두 변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

- ① ‘오너라’는 어간 ‘오-’에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아라’가 아닌 ‘-너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 ③ ‘지어’는 어간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짓-’에서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묻다’는 어간 ‘묻-’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묻-’이 ‘물-’로 변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하다’는 어간 ‘하-’에 어미 ‘-여’가 결합하므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19) ②

[출제의도]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의 ‘맞아’는 맞다²의 「2」의 용례에 해당한다.

20) ①

[출제의도] ‘-나다/-는다’가 쓰이는 환경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던진다, 온다, 잔다’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묻다, 운다, 만든다’는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다. ‘웃으신다, 감으신다, 막으신다’는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는 받침 있는 동사의 어간 뒤에 ‘-는다’가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1)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쏟다’의 활용형이 ‘쏟은’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할 때 ‘ㄷ’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듣다’의 활용형이 ‘들은’이라는 데에서 ‘ㄷ’이 ‘ㄹ’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밀다’의 활용형이 ‘내민’이고, ‘부풀다’의 활용형이 ‘부푼’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ㄹ’이 탈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④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형과 준말의 형태 및 특성 추론하기

ㄱ과 ㄴ의 활용형의 준말이 다른 것은 ㄱ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고, ㄴ은 ‘섭섭하지’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서 ‘하’의 앞 음절과 관련이 있다.

[오답]

- ① ㄱ의 경우 ‘흔하지’가 ‘흔치’로 주는 것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다.
- ② ㄴ의 경우 ‘섭섭하지’가 ‘섭섭지’로 주는 것은 어간의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 ③ ㄷ의 경우 ‘이러하지’가 ‘이렇지’가 되는 것은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남은 ‘ㅎ’이 앞 음절 끝소리에 붙었기 때문이다.
- ⑤ ㄹ의 경우 ‘삼가지’의 준말이 없는 것은 원형이 ‘삼가다’로 어간에 원래부터 ‘하’가 없었기 때문이다.

23) ②

[출제의도] 주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주격 조사 ‘께서’는 주어(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붙는 것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 ①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한다.
- ③ ㉠에서는 서술어 ‘했다’의 주어가 문맥상 ‘나’임이 분명하므로 생략되었다.
- ⑤ ‘친척도 서로 만나기’는 명사절로 그것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24) ②

[출제의도] 부사어의 특성 파악하기

자료를 통해 부사어가 체언(은수)뿐만 아니라 부사어(잘)도 꾸밈을 알 수 있다. 부사어는 ‘가수’와 ‘처럼’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어도 있고, ‘정말’처럼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무척이나’처럼 보조사 ‘-이나’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쉬는 시간에’라는 부사어는 ㉠에 넣어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⑤

[출제의도] 국어의 관형어 유형을 이해한다.

㉠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는 ‘만나다’의 어간 ‘만나-’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는 관형사가 곧 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는 체언 ‘때’에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는 관형사가 곧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26) ②

[출제의도] 어휘가 지닌 의미와 쓰임을 파악한다.

‘발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서술어로 사용되면서 어떤 문장 성분을 취하는

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ㄷ은 부사어 ‘가게에서’와 함께 사용되어 사람을 주어로 취했다. 그러나 ㄹ은 부사어를 취하지 않았으나 ㄹ에 생략된 주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27) ④

[출제의도]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일찍 먹기’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일찍 먹기’ 뒤에 붙은 ‘는’은 조사이다.

[오답]

- ③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 ⑤ ‘자기가 옳다’는 간접 인용 조사 ‘고’가 쓰인 인용절이다.

28) ②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이해하기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오답]

- ① ㄱ은 두 문장이 대조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ㄷ은 안긴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처럼 쓰인 경우이고, ㄹ은 안긴 문장이 ‘영수’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9) ⑤

ㄴ에서 ‘공부하다’란 동사와 같이 ‘체언+-하다’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공부하다, 추천하다 등), 이를 부정할 때에는 ‘안 공부하다’보다는 ‘공부 안 하다’와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다.

30) ④

[출제의도]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단정’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

31) ⑤

[출제의도] 문법 범주 이해하기

㉠의 ‘-기-’는 행위 주체인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인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피동 접미사이다.

[오답]

- ① ㉠에서는 행위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떡다’의 높임말인 ‘들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날리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 ‘-ㄴ-’은 현재를, ㉡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라-’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인 ‘연’이 날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동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가다’라는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32) ①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3) ⑤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에 대한 탐구학습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ㄱ의 ‘-였-’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동사 어간 뒤에 붙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ㄴ의 ‘-였-’은 ‘조이였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ㄷ의 ‘-였-’은 ‘먹이였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이때 ㄴ의 ‘-아-’와 달리, ㄷ의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ㄹ에서 ‘-았-’은 양성 모음 뒤에, ‘-었-’은 음성 모음 뒤에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ㅁ은 체언과 서술격 조사로 된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때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의 준말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34) ⑤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ㄱ의 ‘-으셨-’은 ‘-(으)시-’와 ‘-었-’이 축약된 것이다. ‘-(으)시-’가 ‘높임’을, ‘-었-’이 ‘시제’를 나타내는데, 둘이 함께 쓰일 때는 ‘높임 - 시제’ 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5) ④

[출제의도]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

ㄹ의 ‘-을’은 미래 시제와 의지를 나타낼 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6) ②

[출제의도] 명사형 어미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고,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다. 〈보기 2〉의에서 ‘잠¹’은 서술성이 없고 ‘잠²’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¹’의 ‘-ㄴ-’은 접미사이고, ‘잠²’의 ‘-ㄴ-’은 명사형 어미이다.

37) ④

[출제의도] 연결어미 이해하기

ㄹ의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비가’이고, 뒤의 주어는 ‘제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ㅁ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비가’이지만,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네가’, 청유형일 때에는 ‘우리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8) ⑤

[출제의도] 연결어미 ‘-고/고서, -며/면서’의 용법 알기

한 주체가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에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내려면 ‘-고’나 ‘-고서’를 써야 하고,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려면 ‘-며’나 ‘-면서’를 써야 한다. ㄹ은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놓고 공부하며 잠을 자는 동작을 나열한 것이지 동시에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며’는 ‘-고’가 잇달아 나오는 것을 꺼려서 사용한 경우이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39) ②

ㄱ의 ‘치면서’는 평서문과 어울리며 ㅁ의 ‘먹으면서’는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과 자유롭게 어울린다. 따라서 ‘-(으)면서’는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린다고 보아야 한다.

40)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이 문항은 ‘아니오’와 ‘아니오’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오’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어 된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③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오답]

- ①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십시오, 가오, 가게,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41) ②

[출제의도]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에는 짧은 ‘못’ 부정문과 긴 ‘못’ 부정문이 모두 올 수 있고, ㉡에는 ‘안’ 부정문이되 짧은 부정문이, ㉢에는 ‘안’ 부정문이되 긴 부정문이 적절하다.

42) ②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은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로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43) ⑤

[출제의도] 부정 표현 이해하기

‘꽃이 안 예쁘다.’는 부정 부사 ‘안’이 쓰인 짧은 부정문이다. 그러나 ‘예쁘다’는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형용사이므로, ‘꽃이 안 예쁘다.’는 행동 주체인 ‘꽃’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 부정이 아니라,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오답]

- ①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라.’처럼 쓸 수 없으므로, ‘마라’를 이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 ②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부정부사 ‘못’을 이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않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44) ⑤

이 담화에서 모시는 동작의 대상은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

45) ②

[출제의도]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저희’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 ‘저희 반 아이들’에서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 ① 종결 어미로서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선어말 어미 ‘-시-’는 ‘주다’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드리다’는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물을 받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 ④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의 신체이므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어르신’과 ‘모시다’는 문법 요소가 아니라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46) ④

[출제의도] 주체높임법의 용례를 묻는 문제이다.

ㄴ의 높임 대상은 ‘살림’이고, ㄷ의 높임 대상은 ‘작은아버지’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47) ①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였으므로 주체(주어)가 화자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동생이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주체(주어)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따라서 ㉠과 ㉡의 분석이 옳다.

48) ③

[출제의도] 높임 표현 파악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떡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다’와 ‘떡’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떡’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49) ①

[출제의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았-’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특수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50) ③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51) ①

[출제의도] 국어의 피동 표현을 이해한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므로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

-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52) ②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의 ‘결린’은 ‘결대④’, ③의 ‘걸렸다’는 ‘결대①’, ④의 ‘결린’은 ‘결대⑤’, ⑤의 ‘걸리기’는 ‘결대③’의 피동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3) ①

[출제의도] 사동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⑤는 각각의 문장이 속한 문맥에 따라 동작의 주체가 ㉠과 같이 달라질 수 있으나, ①은 언제나 ‘다정’이 직접 동작을 실현해야 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54) ④

[출제의도] 어법의 이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를 <보기>에서 제시한 설명에 따라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하면 두 가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와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인데, ㄷ의 문장에서는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5) ③

‘초점을 때리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는 핵심적인 것을 피한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말하다.’의 뜻인 ‘변죽을 울려서’가 (가)에 적절하다. (나)에는 ‘오리발만 내밀던’의 구절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채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의 뜻인 ‘시치미를 떼다’가 적절하다.

56) ④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손이 재다’는 ‘일처리가 빠르다.’의 의미이다.

[오답]

- ① ‘손을 꼽다’는 ‘교재나 거래, 맺었던 관계를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 ② ‘손이 서들다’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 ③ ‘손이 여물다’는 ‘일하는 것이 빈틈없고 매우 꼼꼼하다.’의 의미이다.
- ⑤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떠서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의 의미이다.

57)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소리를 내는’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이 표기로 잘못된 이어진 사례이다. 그러나 ‘눕히다’를 ‘눕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눕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를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로 연음 현상에 따른 잘못된 표기의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 ① ㉡의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들어서다’의 연음에 따른 발음 [드러서다]가 표기로 잘못된 이어진 사례이다.
- ③ ㉢의 ‘그렇지 /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 소리되기에 따른 발음 [그러치]가 표기로 잘못된 이어진 사례이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④ ‘엮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엮케]로 발음되는데, 이를 표기에까지 반영하여 ‘엮켜’로 잘못 적는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은 ‘해돋이’의 구개음화에 따른 발음 [해도지]가 표기로 잘못된 이어진 사례인데, ‘금불이’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금부

치'로 잘못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y]'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58) ③

[출제의도] 띄어쓰기 이해하기

(다)에서 '뿐'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뿐'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뿐'은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뿐'을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띄어 써야 한다.
-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한다.
-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59) ②

[출제의도] 사례를 바탕으로 띄어쓰기 원리를 추론하고 이를 확대 적용한다.

㉠'쏟아지기'의 '같이'는 체언 뒤에 붙여 썼다. 그런데 ②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체언이 아니라 '과'라는 조사 뒤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은 올바른 추리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쏟아지기'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②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과'라는 조사 뒤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60) ⑤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과 ㉣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61) ③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 때의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62) ③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오랜만' :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래간'과 '만'이 결합한 명사, '만' : 동안이 얼마간 계속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오답]

- ① '-르걸' :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걸' : '것'과 '을'의 준말로 의존명사.
- ② '-르게' :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게' : '것'의 준말로 의존명사.
- ④ '-ㄴ데' :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데' :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⑤ '-ㄴ바' :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바'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63) ①

[출제의도]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 ㉡, ㉢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의 '달아가다'는 '달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달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달아 가다'와 붙여 쓴 '달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 ㉡, ㉢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①이다.

64) ①

①의 '좀'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로 '정도나 분량이 적게'의 뜻인 '조금'과 바꿔 쓸 수 없다.

65) ③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하기

〈보기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가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에서 '깎두기'는 'ㄱ'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ㅌ'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 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깎두기'가 아닌 '깎두기'로 적어야 한다.

66) ②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제5항-3의 규정에 의하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깎짜기'가 아니라 '깎자기'로 표기한다. 그런데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살작'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살작'을 '살작'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평가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67) ④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④는 '느긋이'가 올바른 선택이다. '느긋이'는 〈보기〉의 규정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

- ① '고이'는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② '겹겹이'는 첩어인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③ '족히'는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접미사가 붙어 부사의 끝 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⑤ '각별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어 '-히'로 소리 나는 단어이다.

68) ⑤

[출제의도] 문장에서 어휘의 사용이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의 '몇 일'은 '며칠'로, ②의 '오랜동안'은 '오랫동안'으로, '오랫만에'는 '오랜만에'로, ③의 '부비며'는 '비비며'로, ④의 '밀어부쳐'는 '밀어붙여'로 써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69) ②

②에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많이 걸어 종아리가 땅졌다.'가 맞다.

70) ②

'엇그제'는 맞춤법에 맞는 말이다.

71)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

이 문항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표기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사례를 고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이 주로 규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왔음에 비해, 이 문항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처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제시된 용례처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안건을 회의를 부치다.', '표결에 부치다.', '재판에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등처럼 쓰인다. '부치다'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붙이다'는 대체로 '붙다'의 사동사로 쓰여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벽에 메모지를 붙이다.', '연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

[오답]

- ① '어제저녁'의 준말로, '엇저녁'이 아니라 '엇저녁'으로 써야 한다.
- ③ '적지 않은'의 준말로, '적잖은'이 아니라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 ④ 김치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깎두기'가 아니라 '깎두기'가 바른 표기이다.
- 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넓적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72) ①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어쨌든'으로 써야 맞다. '어찌하였든', 혹은 '어찌 되었든'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졌-'은 '-졌-'으로 써야 한다.

73) ①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어쨌든’으로 써야 맞다. ‘어찌 하였든’, 혹은 ‘어찌 되었든’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쨌-’은 ‘-했-’으로 써야 한다.

74) ③

[출제의도]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이해한다.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③의 문장은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등으로 고쳐야 문장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

75)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하기

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므로,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

- ①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 ② 부정 서술어 ‘안 된다’와 호응하는 부사인 ‘절대’로 바꾸어야 한다.
- ③ ‘회의를 갖는’은 외국어 번역투이므로, ‘회의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 ⑤ ‘근절’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이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또는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76)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에서도 비교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나’와 ‘책’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하고, ‘주호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오답]

- ① ‘부르다’의 피동형은 접사 ‘-리-’를 사용한 ‘불리다’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② 동작의 주체가 ‘손님’이고 화자가 명령하는 상황이므로 해요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③ ‘설레다’의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설렘’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⑤ ‘제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시-’를 쓸 수 없으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77) ②

[출제의도]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의논하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라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로 고쳐 쓴 이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

- ① ‘예상’에 ‘미리’의 의미가 들어 있어 의미가 중복된다.
- ③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에서 ‘눈이 시리도록’은 ‘파란’과 ‘보았다’를 모두 수식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읽혀지다’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읽히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된 이중피동이다.

78) ①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구성 방법을 이해한다.

‘라고’는 직접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므로 ‘가졌다라고’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에서 ‘라고’를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로 바꾼 것이다. (나)의 ‘환기’에는 이미 ‘공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된다. (다)에서 ‘규명하고’를 넣은 것은 원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9) ②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은 접속조사 ‘과’로 연결된 두 목적어 중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필수성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의 ‘불러졌다’는 피동 접미사인 ‘-리-’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불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은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문장이 중의성을 갖게 된 예이다.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명사와, ‘-에게’는 유정명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0)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은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친 문장에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81) ④

[출제의도]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사례를 교정한다.

㉠은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인지, ‘그의 동생’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을 ‘동생’이라고 볼 수 없고,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라고 볼 수 없다.

82) ③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니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 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오답]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 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데’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83) ③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 문장에서 주어는 ‘유럽의 과학자들은’이므로 ‘확인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는 ‘확인된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하였다’이다.

84) ①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휴지 외에 다른 일용품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추가하게 되면,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